

## 지역연구와 濟州學: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유 철 인

### 요 약

이 글에서는 사회과학으로서 제주학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제주사회와 제주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는지, 그러한 사회문화연구가 제주학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이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때, 지역연구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지역학이 될 수 있는가. 지역학은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는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특징과 정체감을 찾아내고, 지역을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지역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동안의 제주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개별학문의 연구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민속학자나 제주출신 학자들이 수행해 온, 제주문화의 원형을 찾거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제주의 고유성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은 제주도가 독특하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여 제주문화(사회)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 보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의 연구들은 비교연구 방법을 통해 제주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측면에서 제주적인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제주사회를 주변사회나 열린사회로 보고 제주도를 연구한 사회학자나 인류학자의 연구들은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진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대 교수·인류학

\* 이 논문의 초고는 “제주학으로서의 제주사회문화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주방송인클럽 주최 〈제주지방학의 연구와 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1996년 8월 30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발표되었다.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별학문에서의 연구가 지역학에 얼마나 공헌하여 왔는가를 바탕으로 연구주체를 선정하여, 사회과학의 개별학문들 간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 I. 지역학과 사회과학

윤근식은 『한국사회과학론』의 책머리에서 사회과학을 “인간적 실천의 표현형태로서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관련되어 역사과정에서 제약 당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전체로서의 사회”(1983: xi)에 관한 연구로 정의하였다.<sup>1)</sup> 그가 내린 사회과학에 대한 정의는 사회의 역사성과 총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인 “‘사회’없는 사회과학들이었던가”라는 질문은 곧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이 ‘특정’ 사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특정 사회가 지역사회나 국가사회를 가리킬 때,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 된다. 결국 사회과학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이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때, 지역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게 된다(Bernard 1973 참조). 지역은 하나의 지연적 공간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공통의 유대

1) 사회과학에 속하는 분과학문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어떤 분과 학문이 사회과학에 속하느냐는 학문공동체의 제도적 측면에 불과하다.

KDC 도서분류표에서는 사회과학 안에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및 사회문제, 정치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풍속 및 민속학, 국방 및 군사학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문분류표에서는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국토계획, 관광학, 사회학, 사회복지, 신문방송, 심리학, 문헌정보학, 교육 등을 사회과학 분야로 분류하고, 인류학과 민속학을 인문과학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과학안내』(A Reader's Guide to the Social Sciences)라는 미국 문헌(Hoselitz 1959)에서는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요소가 강조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가. 지역이 하나의 지연적 공간을 의미할 때, 마을 수준의 지역사회, 좀 더 넓은 지역사회, 국가, 해외지역 모두가 지역에 해당된다.<sup>2)</sup> 지역이라는 말이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할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말하는가. 아니면 “100만인 제주공동체”처럼 공통의 유대와 정체감(identity)을 강조하는 상징적 공동체를 말하는가.

사회과학이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때는 위의 모든 것, 즉 여러 범위의 지연적 공간과 지역공동체와 상징적 공동체를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물론 어떤 입장에서 어느 범위의 지역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연구방법과 연구의 결과는 다를 것이다. 어느 지역에도 통용되는 일반법칙 및 공통성의 발견을 위해 지역간 비교를 통한 법칙정립적인 지역연구도 있으며, 지역 특유의 문화와 세계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간 차이나 지역의 특징을 찾기 위해 특정 지역 자체가 연구대상이 되는 개별기술적인 지역연구도 있다(김성국 1995 참조). 제주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제주학’은 지역연구의 두 번째 형식인 특정 지역의 특징을 찾아내는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징과 특유의 문화를 찾아내려는 지역연구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지역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다른 지역의 지역학에도 그대로 나타난다.<sup>3)</sup> 한국의 한 지역으로 지

2)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은 그 범위가 다양하다. 한국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마을 수준에서 수행된 것들이 많다(신행철 1989 참조). 국가를 단위로 하여 성립된 지역학으로는 한국학, 미국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요사이 한국의 학문공동체에서 지역연구(Area Studies)라 할 때는 보통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를 가리킨다.

3) 국가단위의 지역학에서도 특정 개별 학문의 전공자들이 주도하여 나름대로의 학문의 정체감을 만들고 있다. 외국학자들이 하는 한국학은 주로 언어, 문학, 역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학자들이 하는 미국학은 미국문학 전공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학자들이 하는 미국학은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미국다움 즉 미국의 정체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역학을 가장 먼저 표방하고 나선 ‘서울학’은 定都 600주년(199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서울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이면서 깊이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야라 할 수 있다.” 서울학은 1993년 7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서울학은 “서울의 뿌리찾기이며 서울에서 서울을 다시 찾는 하나의 운동”(안두순 1994: 7)으로 시작되었지만, 서울학이라는 새로운 독자학문이 어떤 학문이나를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서울학을 “역사, 지리, 문화, 도시, 건축, 경제, 자연환경,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서울의 생성, 성장, 발달 및 변천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안두순 1994: 12)하는 학문으로 설명하거나, “‘서울’이라 불리는 지표면상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서울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고석규 1994: 32)으로 서울학을 정의 내리고 있다. 서울학의 연구대상으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이 도시라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학은 도시학(Urban Studies) 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학은 서울에 대한 개별 분과학문의 연구라기보다는 서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과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sup>3)</sup> 서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 4) 제주(도)학이란 말이 거론된 적은 그동안 종종 있었지만, 학문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5년 12월 1일 열린 <濟州島研究會> 정기총회에서 학회명칭을 <濟州學會>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의 서울에 대한 연구와 제주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전의 제주도에 대한 연구를 비교하면, 그동안의 제주도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제주도 지역에 대한 정체감과 특징을 찾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서울학보다는 제주학이 더 먼저 실천에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 5) 서울학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연구분야를 보더라도 서울학은 사회과학적 성격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학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연구분야들은 “서울의 역사, 지리, 사회, 정치, 경제, 행정, 생활, 풍속, 민속, 건축,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서울을 내용적·물리적 대상으로 한 전 분야”(1996년도 서울학연구소 학술연구조성비 연구비 지원신청 요강 참조)로 되어 있다.

중앙에 대한 연구 혹은 도시일반에 대한 연구로서만 수행되고,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서울을 보지 않았다는데 지방학으로서의 서울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다(조성운 1994: 110-112 참조).<sup>6)</sup>

‘부산학’을 거론한 김성국(1995)은 부산학 연구의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하였다. 국제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에 맞추어 “부산의 논리” 즉 부산의 새로운 발전논리를 정립할 필요성과 부산연구의 체계화를 들었다. 결국 부산학이란 “부산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현재적 과제를 분석하여, 부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며, 나아가 미래의 부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학이 부산의 특성과 정체감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부산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관련이 깊다. 또한 그는 지역학의 인식론적 기초로서 사회문화를 들고 있다. 즉 사회문화가 지역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를 강조하였는데, “문화는 통합성과 분리성이라는 양면성을 통하여 지역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드러나게 한다 …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문화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다”(김성국 1995)라고 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부산에 대한 연구와 생활문화사 등을 부산학의 주요 내용으로 들고 있다.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개별학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새삼 서울학, 부산학 등과 같은 지역학을 내세우는 것에는 사회/지역의 역사성과 총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여진다.

---

따라서 서울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연구분야들은 주 1)에서 설명한 세 가지 사회과학의 분류방식에서 KDC 도서분류표 방식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많지만, 세 가지 모두를 적용시키면 전부 사회과학의 한 분야들이라 하겠다.

- 6) 서울을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볼 때, 서울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지방이 된다. 지방은 중앙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므로 서울지역도 서울지방이 된다.

## II. 제주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서울이나 부산은 뿌리찾기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지역을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재인식하여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학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는 섬이라는 지연적 공간성이 지역학의 기초가 되고 있다.

1996년 1월부터 濟州學會로 명칭을 변경한 濟州島研究會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역사와 사회구조, 도민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 등 제주도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학문분야 전공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촉진, 나아가 그를 통하여 지역연구의 표본으로서 제주도연구의 진흥과 그의 국제적 연결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78년 3월 28일에 창립되었다. 발기인 6명의 전공을 보면, 민속학자가 3명(김영돈, 장주근, 진성기), 국문학자(현길언), 인류학자(전경수), 고고학자(정영화)가 각각 1명씩이다. 출신지역을 보면, 제주도 출신과 육지 출신이 각각 3명씩이다.

제주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한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로서는 가장 먼저 전국규모의 학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한국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구별되는 특이한 양상을”(한상복 1984: 5)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가치판단을 하게 된 배경(장주근 1984: 8)은 제주도가 첫째, “본토 남단에서 80여 마일을 떨어져서 북위 33°어름에 위치하는 섬”이라는 점, 둘째, “주위 400리의 면적을 가진,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섬”이라는 점, 셋째, “그에 알맞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점 등이다.

제주지역은 도서지역이라는 사실이 하나의 지역학으로 제주도연구가 발전될 수 있는 뚜렷한 지연적/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연구의 인식론적 기초는 제주도가 본토(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이창기 1992: 17-18, 이기욱 1989: 298-300, 유철인 1995).

첫째, 제주도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사회와의 접촉은 거의 무시한 채 제주도를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동체로 보고, 제주문화를 독자적인 하나의 문화체계로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 문화전파 과정에서 한반도의 문화가 변형되어 수용되거나, 과거의 한반도 문화가 잔존의 형태로 남아 한국문화의 古型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로 제주문화를 보는 시각이 있다. 셋째, 제주사회와 외부사회의 관계를 역사적·정치경제학적 과정으로 바라보아 제주도를 주변사회로 보거나, 열려진 하나의 지역사회로 보는 시각이 있다.

### 1. 독자적인 문화로서의 제주문화: 환경결정론과 자문화 중심주의

제주문화를 독자적인 문화로 보려는 시각은 열악한 자연환경을 제주문화의 기초로 보아 환경결정론에 빠지기 쉽고, 제주정신을 제주문화의 핵심으로 보는(현평효 외 1979, 濟州道 1983, 고창훈 1984) 경향이 있다. 제주문화의 원형을 찾거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제주만의 고유성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도가 독특하다는 것만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여(김영돈 1984) 자문화 중심주의의 경향도 보인다. 예를 들어 돌하르방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제주에는 ... 47기의 州縣城 石像이 남겨져 있는데 이는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珍重할 민속자료다”(김영돈 1987: 139)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왜 돌하르방이 중요한 것인지, 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단지 돌하르방이 제주도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펴고 있다.

“이 석상[돌하르방]들의 기능을 요약한다면 첫째 守護神的 기능, 둘째 주술종교적 기능, 셋째 位置標識 및 禁標의 기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한국본토의 〈장승〉의 ‘기능’과 비슷하다. 이 석상들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하다 ... 기록이나 ‘기능·형상·명칭’ 등으로 보아 본토의 〈장승〉(木製 및 石製)이 유입, 변형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장승〉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州縣城 石像들은 그 ‘형상·기능’으로 보아 제주적 고유성을 다분히 간직하고 있다”(김영돈 1987: 140, 필자 강조점 첨가).

돌하르방이 한국본토의 장승과 “기능·형상·명칭”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또한 “기능·형상”의 측면에서 제주적 고유성이 나타난다고만 설명하여, 무엇이 어떤 측면에서 제주적 고유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제주도의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도 이와 비슷하다.

제주문화의 기본성격이 무엇이나에 대한 이야기는 제주도의 전통문화가 무엇이나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 시기의 문화는 “변화가 거듭해 오고 거듭해 가는 한 시점의 현상”이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현용준은 “사라져 가는 제주문화”(1992)라는 글에서 “우리가 제주문화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1930년대의 생활양식”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는 1930년대를 상징한 것은 “제주문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대개 60대 사람들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제주문화가 곧 1930년대의 생활양식”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제주문화의 기본성격을 산업화 이전의 제주문화의 특성인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對面社會의 문화적 속성으로만 파악한 것이다. 이는 또한 전통은 과거의 첫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문화의 기본성격을 논하는 시각은 문화를 주어진 실체로만 파악하여 문화의 내적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다(유철인 1990: 106, 김창민 1995: 22). 주로 민속학자들이 제주문화를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로 보고 있는데, 이는 민속학이 특정 집단의 민속에서 독자성을 찾아내어 집단의 정체감을 강조해온 학문적 특성과도 관련된다.

## 2.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의 제주문화: 비교문화적 접근

제주문화를 한반도의 문화가 전파되어 변형되어 수용되거나(조혜정 1984), 과거의 한반도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한 하위문화(subculture)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기초 위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무속(장주근



1984)이나 가족 및 친족제도(최재석 1979, 이창기 1991)를 대상으로 한반도(육지)와 제주도를 비교하여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가족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남분가와 균분상속의 전통, 부계혈연집단의 결속약화, 조상제사의 분할 등을 육지의 유교문화가 충분히 침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거나(최재석 1979),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잔존형태로 파악하고 있다(이창기 1991).

그러나 제주도의 장남분가에 대해서는 부모와 장남부부가 한 울타리 내 안거리와 밖거리의 다른 채에 거주하면서 취사를 달리하는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느냐, 두개의 별개 가족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현상에 대한 인식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최재석(1979: 21)은 “제주도의 가족에 있어서는 〈가계의 공동〉, 즉 경제생활의 공동 가운데 취사의 공동이 단위로서의 가족생활 확인의 가장 유효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여 두개의 별개 가족(부모 가족과 분가한 자식 가족)으로 보았다. 제주도에서 살림을 따로 낼 때, 즉 분가하는 것을 ‘술 가른다’고 말하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최재석 1979: 30, 김혜숙 1984: 129).

이와 달리 이광규(1975: 32)는 안거리와 밖거리에서 따로 살고 있는 제주도의 가족을 결혼과 혈연으로 결합된 구성원이 동거집단을 이룬다는 점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하면서, 공동취사집단을 世帶로 부르고 있다. 즉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서는 가족과 세대가 일치하지만, 제주도에서는 1가족 2세대 형태의 가족생활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광규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탐라문화학술회의에서는 최재석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공동의 거주와 공동의 경제라는 가족의 요건 중 경제생활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안거리와 밖거리에서 따로 살고 있는 제주도의 가족은 경제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실제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가족이라는 것이다(이광규 1984: 62-63).

공동의 거주와 공동의 경제생활이라는 관점 이외에 현용준(1973: 72)은 이러한 제주도의 가족이 대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가

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회생활과 가족의식의 측면을 언급하였다. 즉 부모 世代와 장남 부부 世代의 두 집단이 “사실상” 두 개의 가족 이면서, 마을행정의 단위로는 하나의 가족으로 취급되며(사회적 혹은 행정적 공인의 측면), 대외적으로 하나의 가족임을 나타내고(가족이라는 단위의 범주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기능하는 측면), 또 두 집단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가족구성원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을 지적하였다.

세 학자들의 제주도 가족에 대한 논의는 육지의 가족생활과 제주도의 가족생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최재석(1979: 43)은 육지가족의 理想型은 직계가족이지만 제주도 가족의 이상형은 부부가족이라고 주장하여, 제주문화와 한국문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용준(1973)은 제주도의 이상형도 직계가족이지만 현실적 유형에서는 부부가족이고, 단지 생활모습(특히 취사)이 육지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가족에 대한 설명은 제주지역의 특징을 한반도와 비교할 때 어떤 측면이 같고 어떤 측면이 다른지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와 다른 측면이 나타나면, 즉 제주지역의 특징이 나타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문화전파, 열악한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제주문화를 문화전파 과정과 연결시켜 인식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보다 유교화하기 이전의 문화유형과 사회구조”(이광규 1984: 75)를 알기 위해 제주도를 연구한다는 연구목적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주도를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파악하려는 지역학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하겠다.

### 3. 주변사회로서의 제주사회: 共時的·通時的 관점

제주사회와 외부사회의 관계를 역사적·정치경제학적 과정으로 바라보아 제주도를 주변사회로 보거나 제주도를 열린사회로 보는 시각

은 제주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화현상을 설명하거나 사회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시각도 앞서 말한 두 입장과는 달리, 문화를 주어진 것이거나 어떤 실체가 있어서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재규정되고 재해석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주문화를 현재적 관점에서 주변성과 변동에 대한 대응이나 적용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다(유철인 1986, 김창민 1995 참조).

제주도는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이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체계에 편입되었고, 그 전에는 섬이라는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비교적 고유한 사회구성 원리를 유지해 왔다는”(신행철 외 1995: 3)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주로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를 연구하고 있다. 共時的이거나 通時的으로 시간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을 연구하여, 제주도의 산업화 과정을 “한국사회 내에서 제주사회가 주변사회로 종속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거나(이상철 1987), 현재의 제주사회는 대면사회와 산업사회의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있다거나(유철인 1990), 제주사회에는 농촌사회의 구성원리와 도시사회의 구성원리가 혼재하고 있는 정도가 높다고(김석준·이상철 1995) 제주사회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특성 때문에 제주도의 특징을 찾기 위해 제주도를 연구하려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도 통용되는 일반법칙이나 공통성을 발견하기 위해 제주사회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를 밝힌 논문의 맺는말을 보면,

“지금까지 제주도의 도시개발정책과 개발이익의 분배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도시개발의 기본논리를 설명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밝혀보려고 했던 내용은 ‘한국사회’에서의 도시변동이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되는가, 구체적으로는 각 계급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갈등관계가 도시변동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도시변동이 각 계급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었다”(조성운 1986: 157, 필자 강조점 첨가).

제주도가 하나의 사례가 되고, 연구의 목적은 도시변동과 제급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물론 수집된 자료들을 해석함에 있어 지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징을 찾아내려는 지역학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하겠다. 또한 제주사회를 주변사회로 규정하게 되면, 제주사회를 “한국사회의 요구에만 치중하여 파악하고 제주사회 자체의 역동성을 소홀히 취급”(이상철 1987: 62)하게 되기도 한다.

### Ⅲ. 제주학의 과제: 사회문화적 측면

제주사회와 제주문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는 연구대상 뿐만 아니라 연구목적과 제주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한 차이는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등 개별학문의 특성 때문에도 나타났다.

주로 민속학자나 제주출신 학자들이 수행해 온, 제주문화의 원형을 찾거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제주의 고유성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은 제주도가 독특하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여 제주문화(사회)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 보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의 연구들은 비교 연구 방법을 통해 제주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측면에서 제주적인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제주사회를 주변사회나 열린사회로 보고 제주도를 연구한 사회학자나 인류학자의 연구들은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진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학은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는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특징과 정체감을 찾아내고, 지역을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도의 사회·문화를 보는 인식론적 기초에 따라 제주도를 달리 연구하고 있는 개별 학문의 성과가 지역학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개별학문의 제주사회/문화연구가 지역학에 공헌하는 정도

개별학문	인식론적 기초	지역학에 대한 공헌 정도		
		지역정체감 발견	지역특징에 대한 설명	지역사회의 발전
민속학/인류학	독자적인 문화	상	하	중
인류학/사회학	하위문화	중	상	중
사회학/인류학	주변사회/열린사회	하/중	중	상

결국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별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sup>7)</sup> 사회과학의 개별 학문들 간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학으로서의 제주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과제로는 첫째,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념(유철인 1992)이나 제주사회의 구성원리가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1960년대 이후의 제주사회가 육지와 교류하는 정도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제주도의 사회·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발농사적인 체제에서 바로 산업화 체제로 건너뛰는”(조혜정 1985) 변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변동이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둘째,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육지사람’과 ‘제주사람’(유철인 1984, 1986)들이 같은 삶의 공간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하위문화로서의 지역문화를 연구의 단위로 삼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실재성이 구성원의 측면에서 구분되는 경계와 전체문화와 하위문화간의 차

7) 여기서 제시하는 연구주제들은 지극히 선택적인 것들로서 다른 주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제주사회 연구의 과제로 신행철(1987: 58)은 비교연구 방법에 의한 연구,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예측해 보는 연구, 총체적 연구, 제주 여성에 대한 사회학적·인류학적 연구, 제주사회 자체가 지닌 용력을 진단하고 조직화하는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이 전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황익주 1995) 제주문화의 구성원은 누구인가와 제주문화와 육지(한국)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제주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사회나 제주문화에서 독특하다고 일컬어지는 현상(장남 분가)이나 사물(돌하르방)이나 사건(4·3)이나 사람(해녀)이 제주도의 상징으로, 신화로, 이미지로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는 제주사람의 생활방식과 육지사람의 생활방식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주사람들이 자기의 정체감과 지역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인한 제주문화의 상품화 현상이나 제주도연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관광지역으로만 인식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만 인식하려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담론 속에서,” 관광을 단지 산업이나 경영의 측면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제주의 새로운 발전논리를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학은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의 실천적 발전전략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총체적으로 찾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8) 제주해녀가 신화로서 (재)생산되고 있고, 해녀에 대한 연구도 그러한 신화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 권귀숙(1996)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9) 제주도연구회(現 제주학회)가 1985년 11월에 개최한 제1차 전국학술대회의 주제가 ‘제주도의 보존과 개발’이었다. 발표된 논문과 토론의 내용은 제주학회의 학술지인 『濟州島研究』 제2집(1985)에 실려 있다.

## 참 고 문 헌

고석규

1994 “서울학 연구방법 시론: 역사학의 관점에서”, 『서울학 연구 서설』, 안두순 편, Pp. 27-45,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 연구소.

고창훈

1984 “제주문화의 사회과학적 이해에 관한 연구: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1: 19-45, 濟州島研究會.

권귀숙

1996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 227-258, 한국사회학회.

김석준·이상철

1995 “제주지역 사회조사의 성과와 과제”, 「지방화와 지역사회연구 방법론의 제문제」 학술발표대회(10월 6-7일,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발표논문.

김성국

1995 “지역학으로서의 부산학 연구: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방화와 지역사회연구 방법론의 제문제」 학술발표대회(10월 6-7일, 전남대 사회과학 연구소 주최) 발표논문.

김영돈

1984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 민속학적 측면에서”, 『濟州島研究』 1: 436-437.

1987 “돌하르방”, 『濟州道民俗資料』, Pp. 123-140, 제주도.

김창민

1995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서울: 집문당.

김혜숙

1984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17집(사회과학 편), Pp. 119-144, 제주대학교.

신행철

1987 “제주사회연구의 전개와 과제”, 『濟州島研究』 4: 47-63.

1989 『제주 농촌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서울: 일지사.

신행철 외

1995 『제주사회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안두순

1994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 『서울학 연구 서설』, 안두순 편, Pp. 3-26,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 연구소.

유철인

1984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濟州島研究』 1: 119-144.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양식”, 『탐라문화』 5: 71-93. (신행철 외, 1995, 『제주사회론』에 재수록됨.)

1990 “해석인류학과 생애사: 제주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의 모색”, 『濟州島研究』 7: 105-117.

1992 “제주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관념”, 『濟州島研究』 9: 37-47.

1995 “제주문화의 연속과 변화와 재창조”, 제주도연구회 제11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

윤근식

1983 “책머리에”, 『한국사회과학론: ‘사회’없는 사회과학들이었던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Pp. xi-xiii, 서울: 대왕사.

이광규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1984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사회학적 측면”, 『탐라문화』 3: 61-76.

이기욱

1989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1: 295-340.

이상철

1987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8(3): 31-6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신행철 외, 1995, 『제주사회론』에 재수록됨.)

이창기

1991 “제주도의 제사분할”, 『한국의 사회와 역사』(최재석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Pp. 295-313, 서울: 일지사.

1992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적응·초월의 메카니즘”, 『濟州島研究』 9: 17-35. (신행철 외, 1995, 『제주사회론』에 재수록됨.)

장주근

1984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의 濟州島”, 『濟州島研究』 1: 7-18.

濟州道 편

1983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제주도.

조성윤

1986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사회학연구』 네째책: 123-158, 사회학연구소. (신행철 외, 1995, 『제주사회론』에 재수록됨.)

1994 “서울학과 사회학: 서울학 정립을 위한 검토”, 『서울학 연구서설』, 안두순 편, Pp. 107-132,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조혜정

1984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濟州島研究』 1: 438-439.

1985 “근대화에 따른 성역할 구조의 변화: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제17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10월 18일-19일, 한양대학교 반월캠퍼스) 발표논문.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서울: 일지사.

한상복

1984 “창간사”, 『濟州島研究』 1: 5-6.

현용준

1973 “가족”,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Pp. 70-80, 제주도.

1992 “사라져 가는 제주문화”, 한라일보사 주최 「제주문화 살릴 길 없는가」 (12월 4일, 한라일보사 대회의실) 제주도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현평효 외

1979 “탐라정신 탐구”, 『논문집』 제11집(인문·사회과학 편), 제주대학.

황익주

1995 “지역(문화)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의 쟁점”, 「지방화와 지역 사회연구 방법론의 제문제」 학술발표대회(10월 6-7일,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발표논문.

Bernard, Jessie

1973 *The Sociology of Community*,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 (안태환 역, 『지역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2).

Hoselitz, Bert F. (ed.)

1959 *A Reader's Guide to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Free Press.

## A Review of Studies on Cheju Society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Chejuology”

Yoo, Chul-In  
Dept. of Sociology,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to discuss “chejuology” as a social science and to review the previous studies on Cheju society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chejuology. How can chejuology defined as Cheju regional studies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The chejuology is to aim at an interdisciplinary work among the social sciences. It intend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dentity of a region,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ional study as a discipline, the previous studies on Cheju society and culture are reviewed as follows. The studies on the prototype of Cheju culture, which are done mainly by folklorists or scholars born in Cheju Island, have contributed to form the identity of Cheju society and culture. Anthropological or sociological studies, regarding Cheju culture as a subculture of Korean culture, have examined the peculiar aspects of Cheju culture in comparing with Korean culture. Sociological or anthropological studies, which consider Cheju society as either a peripheral or an open society, have explained the current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s in relation to the wider society.

In order to build up Chejuology as a discipline, interdiscipli-

nary studies are encouraged. The topics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would be selected deliberately, based on evaluating how the previous studies done in each discipline of social sciences have contributed to regional studies.